

반도체·장비업계 가족경영 ‘쏠림 심각’... 투자 주의보

metro-NICE평가정보 공동기획
데이터로 엿보는 세상

(4) 반도체 소재·장비업계 지분 분석

솔브레인, 가족지분 13.83%

머티리얼즈파크 자녀 100%

상속기반 마련 의혹 목소리도

친인척 특수관계인 지분 다수

중견기업이 ‘정도 경영’의 사각지대로 지적받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장비업계도 경영권승계 등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메트로신문이 나이스평가정보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재·장비 분야 관련 중소 업체 일부는 내부 거래나 경영권 승계 등에서 논란이 될만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솔브레인이 대표적이다. 6월 기준 솔브레인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43.48%를 보유 중이다. 정지완 회장이 29.64%로 대주주에 올라있다. 이 가운데 가족 지분이 13.83%다. 배우자가

<주요 반도체소재 중견기업 주요 지분 구조>

구분	기업	특징
	솔브레인	
정지완 회장	29.64%	
정성호 이사	2.41%	회장 자녀
정문주	2.38%	회장 자녀
머티리얼즈파크	2.05%	자녀 지분 100%
	동진세미켐	
동진홀딩스	32.49%	
동진장학연구재단	3.66%	이부섭 이사장
명부산업	1.23%	이준혁 사장 실소유
	동진홀딩스	
이부섭 회장	55.72%	
이준혁 사장	17.77%	회장 자녀
미세테크	11.59%	자녀 지분 100%

6.11%, 아들 정모 이사가 2.41%, 딸이 2.38%를 보유하고 있다. 2.05% 지분을 가진 머티리얼즈파크도 자녀들이 각각 59.39% 40.61%를 가진 관계사다.

특히 머티리얼즈파크는 최근 내부 거래로 논란이 되고 있다. 매출액 중 30% 이상이 솔브레인으로부터 매출을 올리면서다. 이를 통해 머티리얼즈파크는 매출액이 2015년 270억대에서 지난해 398억원대로 급상승했다. 정 회장이 이를 통해 상속 기반을 마련하는 것 아니

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동진세미켐도 그렇다. 동진세미켐은 동진홀딩스가 32.49%로 대주주에 올라 있는 회사다. 동진홀딩스는 이부섭 회장(55.72%)과 두 자녀들이 각각 3.22%, 17.77%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을 포함한 3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미세테크도 동진세미켐에 11.59%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동진세미켐이 승계 작업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도 기업들은 특수 관계인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황 사장 배우자와 자녀, 친인척이 3.61%를, 황 사장이 이사를 맡고 있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0.21%를 차지하고 있다. 유진테크는 처남과 처남댁이 1.32% 지분을 함께 보유했다.

원익그룹만이 이용한 회장이 확고한 경영권을 쥐고 있다. 원익 홀딩스는 원익이 26.9%, 이용한 원익 회장이 18.1% 지분을 보유 중이고, 원익은 이용한 회장이 38.69%를 가지고 있다. 특수 관계인 지분은 없다.

전문가들은 가족 경영 자체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내부 거래나 상속을 위한 불법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협력사는 규모가 대기업 수준임에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반도체 소재 국산화라는 명분에 방치하고 있다가 위급할 때 문제가 불거지면 더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자회사는 대체로 일감몰아주기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삼성전자 자

회사인 세메스는 삼성전자 지분이 2014년부터 91.54%로 유지 중이다. 이 건희 회장만 지분 4.18%를 갖고 있다. 당초 일본 다이니폰 스크린과 합작했지만, 2010년 지분 21.75%를 인수해 관계를 청산했다.

SK머티리얼즈와 SKC도 SK가 각각 49.1%, 41%를 보유해 대주주에 올라 있다. SKC에 최재원 수석 부회장 0.26%, 한국고등교육재단 0.19% 정도가 특수관계인 지분이다.

SK실트론만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SK가 2017년 LG로부터 지분 51%를 인수한 가운데, 대주주 중 19.4%를 보유한 ‘키시아이비제십육차’가 문제가 됐다.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SK실트론은 SK하이닉스와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지분이 20%를 넘는 경우에만 내부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압박에 따른 경영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 1만명 공채 오늘부터 스타트

전자·금융계열사 이번주 접수

삼성그룹이 이번주 공채 일정을 시작한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5개 계열사는 4일 삼성 채용홈페이지에 3급 신입사원 공채를 공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다.

삼성 금융 계열사와 삼성물산, 호텔신라 등 기타 계열사도 이번주중으로 지원서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접수는 이달 중순경 마감할 전망이다.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직무 적합성 평가를 마친 후 다음달 말쯤에는 삼성 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연말로 예정됐다. GSAT에 합격하면 계열사별로



삼성 대졸 신입사원 공채 직무적성검사 GSAT를 치르기 위해 입실 중인 지원자들. /삼성그룹

임원 면접과 직무역량 면접, 창의성 면접 등을 시행한다.

삼성은 올해 공채에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참가자를 우대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SSAFY에 참가해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프

트웨어 직군 ‘SW 역량테스트’를 면제해주는 것.

구체적인 채용 인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1만명 수준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내년 일자리예산 25.7조 ‘역대 최대’

실업 소득지원에 절반 가까이 책정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구직급여와 같이 실업자 생계 지원 예산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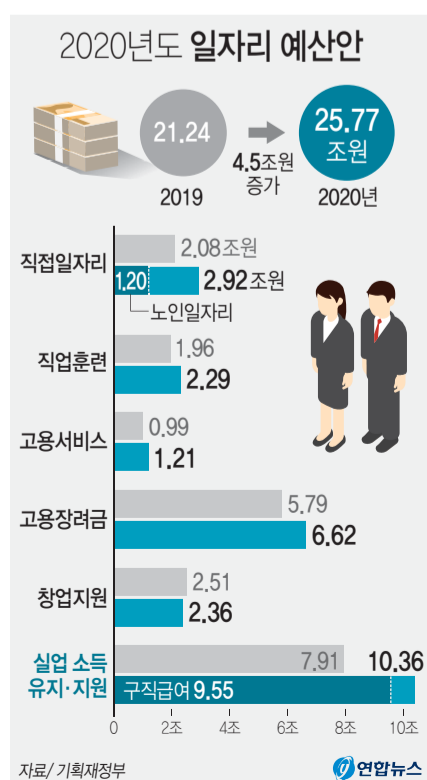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40.2%)으로 가장 많았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공적 자

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한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하고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7조1828억원)과 지원 대상(121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것도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도 836억원으로, 올해보다 28.6% 늘었다.

/손현경 기자 son89@



2.2% 성장도 버거운 韓 경제

2분기 성장률 0.1% ↓1%대 턱걸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하며 간신히 1%대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속보치보다도 낮아졌다. 지난 1분기 -0.4%라는 충격적인 역성장 이후 2분기에도 1.0% 성장에 그치며 한국은행이 목표한 올해 성장률 2.2%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 성장률 전망치인 2.2%를 달성하기 위해서 3분기와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8~0.9%씩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 수출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2%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이 3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1.1%)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속보치를 하회했지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최고치다. 2017년 4분기 이후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실질 GDP 성장률은 -0.4~1.0% 범위에서 움직였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였다.

이날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낮게 나온 것은 지난달 일부 경제활동별 실적치가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설비투자가 0.8%포인트 상향됐으나 정부 소비와 총수출이 각각 0.3%포인트 하향 수정됐다.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민간은 -0.2%포인트, 정부는 1.2%포인트였다. 사실상 정부가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셈이다. 실제로 정부소비는 정부의 재정 확대에 힘입어 2.2%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2.8%) 이후 최고치다. 반면 민간소비는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신승철 국민계정부장이 ‘2019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1%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건설업은 전문건설 등이 늘어 1.6% 성장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3.6% 감소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토목건설,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각각 1.4%, 3.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각각 -3.5%, -7.0%를 기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수출은 2.0%, 수입은 2.9% 증가하며 1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지속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2% 증가해 1분기 -0.3%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0.3%) 이후 가장 높았다.

총저축률은 34.5%로 전기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2.1%)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2.0%)보다 높기 때문이다. 소폭 웃돈 영향이다. 국내총투자율은 31.9%로 전기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김희주 기자 hj89@